

原油價引下가 美國經濟에 미치는 영향

- 배럴당 5달러 引下時의 效果分析 -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

I. 머리말

지난 3월 14일 第68次 OPEC臨時總會가 基準油價를 종전의 배럴당 34달러에서 5달러 인하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러한 OPEC의 결정이 世界經濟에 어떻게 作用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美國의 經濟豫測機關인 Data Resources Inc. (DRI)는 OPEC의 油價引下 결정 이전에 이미 國際原油價가 배럴당 5달러 引下될 경우를 假想하고, 이에 따라 美國經濟의 各部門이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해 놓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DRI는 油價가 배럴당 5달러 下落할 경우, 美國經濟는 物價下落에 따른 實質購買力의 增大와 金利下落에 따른 설비투자의 증가 및 自動車 등 耐久消費財의 수요증대에 힘입어 實質GNP成長率이 今年중 0.5%, 내년중 1.2%포인트 높아지고, 今年중 消費者物價는 0.7%포인트, 失業率은 0.1%포인트 더 낮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今年 1~2月중 이미 住宅·自動車産業을 중심으로 한 景氣回復조짐과 함께 앞으로의 美國經濟를 한층 밝게 해 주고 있다.

다음은 DRI의 分析을 부문별로 要約한 것이다.

II. 都売物價 2.3%포인트 下落 效果

우선 國際原油價의 下落은 美國內 石油類 製品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배럴당 5달러의 油價下落은 약간의 時差를 가지면서 石油製品의 도매가격을 12%포인트, 가솔린 등 燃料油의 소비자가격을 10%포인트 引下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가솔린의 경우 갤론당 1.29달러 → 1.17달러). 또한 油價의 下落은 産業用에너지 수요면에서 천연가스과 石油간의 경쟁을 자극하여 가스가격에 引下壓力을 가하며, 石油投入比率이 큰 電力料金도 인하시켜 全體 에너지는 도매가격으로 7.9%, 소비자가격으로 6.5%포인트의 引下壓力을 받게 된다.

이러한 에너지 價格의 하락에 더하여 原油價의 하락은 ① 石油를 직접 原料로 사용하는 化學品, 비료, 플라스틱과 합성섬유 등 石油化學製品 價格을 낮추며, ②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金屬, 시멘트, 종이製品을 중심으로 한 거의 모든 제품의 價格을 下落시킬 것이다. 물론 이러한 物價下落壓力의 일부는 油價下落에 따른 수요증대로 상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住宅建設의 好況은 木材價格의 상승압력으로 作用할 것이다(品目別 영향은 表-1 參照).

이를 종합할 때, 今年중 도매물가는 2.3%, 消費者物價는 0.7%포인트의 하락요인이 발생하며, 내년중에는 그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III. 勞動生産性的의 向上으로 單位 勞動費用도 안정

〈表-1〉 油價 15%引下가 美國의 物價와 賃金에 미치는 영향

(單位: %포인트)

	1983	1984	1985
海外原油價格	-15.1	-15.0	-15.0
都 売 物 價	- 2.3	- 2.9	- 3.0
燃料 및 電力	- 7.9	- 9.1	- 9.4
國內原油價格	-15.1	-15.0	-15.0
石油製品	-10.4	-12.0	-12.0
燃料 가스	- 5.4	- 7.3	- 8.7
石 炭	- 0.6	- 1.0	- 1.0
電 氣	- 1.1	- 1.9	- 2.2
非에너지價格	- 0.7	- 1.2	- 1.2
纖維 및 衣類	- 0.5	- 0.9	- 1.0
化學製品	- 2.1	- 3.3	- 3.5
고무·플라스틱	- 1.8	- 2.5	- 2.8
原木 및 나무製品	0.2	0.5	1.2
펄프 및 종이	- 1.1	- 1.5	- 1.5
金 屬	- 0.7	- 1.1	- 1.0
機械 및 裝備	- 0.3	- 0.8	- 0.9
輸送 裝備	- 0.2	- 0.5	- 0.7
消費者物價	- 0.7	- 1.1	- 1.3
時間當賃金指數	- 0.1	- 0.3	- 0.5
勞 動 生 産 性	0.2	0.5	0.6
單位勞動費用	- 0.4	- 0.8	- 1.0

(資料) DRI, Review of the U. S. Economy, Feb. 1983

油價의 하락은 위와 같은 製品價格의 하락과 함께, 勞動生産性을 向上시킴으로써 物價安定에 기여한다.

즉 에너지價格의 하락은 노동보다는 자본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投資를 촉진하고 工場의 設備稼働率을 보다 효율적인 수준으로 높여, 노동生産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全般的인 物價의 안정은 物價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 지급되는 費用을 줄이며 또 고용계약시 賃金引上幅을 줄이게 될 것이다. 이를 모두 고려한 單位勞動費用은 금년중 0.4%, 내년중 0.8%포인트 정도의 하락요인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IV. 各種金利도 0.2~0.5%포인트의 下落要因

油價下落到 따른 인플레이션의 鎮靜은 결국

金利의 下落要因이 되며, 또한 通貨當局인 美聯邦準備制度理事會 역시 증전과 같은 인플레이션抑制를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通貨緊縮政策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중요시하는 보다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여 간접적으로 金利의 安定 혹은 下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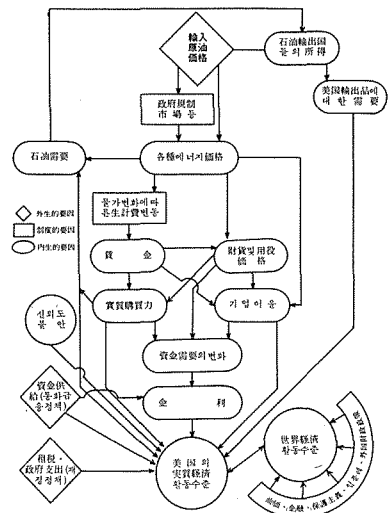
이를 감안할 때 美國의 대표적 市場短期金利인 3個月物 T/B(財務省証券)金利는 금년중 0.2%포인트, 내년중 0.4%포인트 정도의 하락요인이 생기고 優良企業이 발행하는 會社債의 收益率도 금년과 내년중 각각 0.3~0.5%포인트의 下落要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V. GNP成長率 금년중 0.5%, 내년중 1.2%포인트 상승효과

油原價의 배럴당 5 달러 인하는 아래와 같은 要因과 經路를 통하여 美國의 經濟成長에 기여하게 된다. (그림-1參照)

첫째, 物價安定에 따라 소비자의 實質購買力이 증대됨으로써 自動車, 家電製品, 여행 등 각종 재화와 용역에 대한 消費支出이 증가한다. 특히 金利의 움직임에 민감한 自動車는 83年中 30만대, 84년중 60만대가 추가적으로 더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圖-1〉 油價變動의 영향이 美國經濟에 波及되는 經路



둘째, 販賣의 증가와 資本費用(金利)의 하락에 따라 企業의 投資가 확대된다. 물론 油價의 하락으로 石油·가스에 대한 探査와 대체에너지 開發을 위한 投資는 다소 감소하겠지만, 企業의 全般的인 투자심리는 호전되어 85년까지 實質 資本支出이 2.3%포인트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세째, 全般的인 세계경기의 회복으로 輸出이 늘어난다.

그러나 石油輸出國의 石油收入이 감소함에 따라 이들 나라에 대한 재화와 용역의 수출이 감소하고, 美國經濟의 成長으로 인해 輸入이 늘어나는 점 등은 成長을 阻害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諸効果を 감안할 때 油價 15%의引下로 美國의 實質GNP는 금년중 0.5%, 내년중 1.2%포인트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失業率은 금년중 0.1%, 내년중 0.4

(表-2) 油價 15%引下가 美國 經濟全般에 미치는 영향 (單位: %포인트)

	1983	1984	1985
實 質 G N P	0.5	1.2	1.5
消 費 支 出	0.5	1.2	1.4
企 業 設 備 投 資	0.8	1.8	2.3
住 宅 建 設	1.2	2.5	2.9
聯 邦 政 府 支 出	0.4	0.7	0.8
地 方 政 府 支 出	0.1	0.4	0.7
輸 出	0.1	0.6	0.9
輸 入	0.4	1.3	1.9
實 質 可 處 分 所 得	0.6	1.1	1.2
實 質 企 業 利 潤	1.6	4.5	4.7
產 業 生 產	0.9	2.0	2.4
總 에 너 지 消 費	1.3	2.3	2.6
失 業 率	- 0.1	- 0.4	- 0.5
貯 蓄 率	0.1	- 0.1	- 0.2
3 個 月 物 財 務 省 證 券 收 益 率	- 0.2	- 0.4	- 0.5
優 良 企 業 發 行 會 社 債 收 益 率	- 0.3	- 0.5	- 0.5
自 動 車 販 賣 (百 萬 台) ¹⁾	0.3	0.6	0.7
燃 料 輸 入 (百 萬 배 럴 / 日) ¹⁾	0.1	0.4	0.5
燃 料 輸 入 代 錢 (10 億 美 元) ¹⁾	- 10.4	- 7.9	- 6.9
純 輸 出 (10 億 美 元) ¹⁾	8.6	5.2	4.2

(資料) <表-1>과 同一

(註) 1) 油價 15%引下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와의 差異

%포인트 정도의 하락요인을 갖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Ⅵ. 經常收支 改善效果는 金년중 86億달러

國際油價의 배럴당 5 달러 인하는 石油消費의 1/3 을 해외에서 輸入하는 美國의 燃料輸入代錢을 金년중 104億달러 절감시킬 것이며, 그 후 에너지消費가 다소 늘어나 1985년에는 그 節約分이 69億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즉 美國의 石油輸入量은 油價의 下落으로 金년중 10萬배럴/日, 1984年中 40萬배럴/日, 1985年中에는 50萬배럴/日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OPEC會員國과 멕시코 등 石油輸出國의 石油販賣收入減少로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소 감소하더라도, 油價下落으로 인한 石油輸入國들의 전반적인 景氣好轉으로 美國의 수출은 전체적으로 다소나마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美國의 성장好調에 따른 輸入需要 증대 효과는 위의 수출증대 효과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의 제요인을 감안한 經常收支의 개선 효과는 石油輸入代錢 절약분보다 적어져, 金년중 86億달러, 1985年中 42億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Ⅶ. 달러貨에는 弱勢要因으로 作用

한편 油價引下는 달러貨의 弱勢要因으로 作用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첫째 미국의 중요한 交易相對國들의 경제가 미국보다는 石油依存도가 높기 때문에 油價의 下落이 美國商品보다는 相對國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둘째 여타 先進國들의 經常收支改善효과가 미국보다 더 클 것이며, 세째 지금까지 產油國들은 잉여자금의 대부분을 달러貨자산에 투자해 왔는데, 油價引下후 OPEC產油國들이 자금을 회수해 갈 경우 달러貨는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